

지역 소식통

정읍시, '4분의기적'
응급처치 교육 18일 진행

정읍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
교육을 오는 18일 시 보건소에
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진행
되며, 골든타임 4분의 중요성,
심폐소생술(CPR) 방법, 자동심
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중
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두 차례에 걸쳐 최대
30명씩 진행, 교육 신청은 시청
누리집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
해 13일까지 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응
급처치가 생명을 구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과
공무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
관 관리책임자들을 대상 지속
적인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역
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응급처치 교육은 실질적
인 응급처치 역할을 향상시키
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마을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실천교육 실시

부안군은 기후위기의 심각성
과 탄소중립의 군민 공감대 확
산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해 마을
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실천교
육을 추진중이다.

이학수 시장은 탄소중립 실
천교육은 관내 마을별로 주민
1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낱짜
와 장소를 읍·면사무소에 신
청하면 원하는 날짜에 전북 환
경교육센터 소속 환경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한
다.

군은 지난 4월 전북환경교육
센터 주관으로 "부안군 환경교
육강사 양성 심화과정"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 강사 10명을 배
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기후 위기의 원
인과 탄소중립의 의미,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
한 방법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소비자만족도 우수브랜드' 대상

고창 황토배기 친환경 쌀, 130여개 계약된 농가 약 250ha에 재배

'고창군 황토배기 친환경쌀'이 중앙
일보가 후원하고 JY네트워크에서 주
최하는 '2024 소비자만족 우수브랜드-
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행정지역 전 지역이 생물
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고창
의 130여개의 계약된 농가와 약 250ha
의 면적을 친환경(무농약, 유기농)쌀
을 재배하고 있다.

고창 친환경 쌀은 잔류농약 검사와
품질검사 및 품위 검사를 통해 철저하
게 관리되고 있다. 특히 전 공정을 NO
플라스틱 공장에서 설비된 스테인리스
버킷과 미국 FDA가 공식 인증한
식품용 벨트를 사용 안전한 전용시설
(한결 RFC)에서 가공생산하고 있다.

고창 황토배기 친환경 쌀은 수광 품
종으로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하다. 또
한, 해풍을 맞고 자라서 밥 맛이 우수
한 친환경 쌀로 인정받는 브랜드이다.



고창군 친환경 쌀은 올 3월부터 2년
간 제주도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에 883개교 10만900여명에 공급되고
있으며, 현재 이마트 에브리데이, 올
본, 서울학교 급식 등에 전국 700여개
에 친환경 쌀을 납품하고 있다.
또한 고창군은 친환경쌀의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등이 경쟁
이 치열한 레드오션인 분야인 만큼 수
출을 통해 새로운 유통체계를 구축한
다는 복안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소비자의 성원
과 고창군 관계자 및 농업인들의 노력
으로 인해 이번 대상을 수상할 수 있
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민과 상생
하며 고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상상해변 봉사원정대 시즌1'

부안군자봉센터-KT&G 상상유니브, 변산반도국립공원 등서 진행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배)
는 KT&G 상상유니브 전북운영사무국
(국장 김민수)과 함께 2024 상상해변
봉사원정대 시즌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KT&G 상상유니브
전북운영사무국이 기획하고, 부안군자
원봉사센터와 변산반도국립공원(소장
이경식)과 새만금환경생태단지(단장
정주영)의 협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학생 200여 명이 부안군을 방문
하여 고사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해변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새만금환
경생태단지에서는 외래종 제거 및 자
생종 식재 활동을 통하여 환경을 생각
하는 지속 가능한 봉사를 실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대학생
은 "별소에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나
와 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권
유로 함께 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다양
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
금이나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소감을 말했다.

이에 김영배 부안군자원봉사센터장
은 "비쁜 학업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
늘의 봉사활동을 위해서 부안군을 방
문한 대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
하며, 이렇게 뜻깊은 봉사활동이 일회
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이뤄질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
자"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소득기준 조사 실시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
리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 유지를 위해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정기 소득기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치매치료비 지원의 지
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로,
대상자는 2022년도에 선정된 197명이
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증
상의 악화 방지 및 호전을 목표로 치
매 환자들에게 치료·관리 비용을 지
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사회 전반의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비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료, 이들에게 치매치료
관리비 중 보험 급여분에 해당하는 본
인 부담금을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실
비 지원한다.

정기 소득조사는 2년마다 시행되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되
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된다.

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소득기
준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더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삼화타운아파트에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정읍시, 추락사고·자살 예방 강화

정읍시보건소는 7일부터 11일까지
삼화타운아파트에 추락 자살 예방을
위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다.

이 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문을 잠
금 상태로 유지하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설계된 안전장치다.

공동주택은 옥상문을 적절하게 관리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자살이나 추락
사고의 위험이 존재해 왔다. 자동개폐
장치가 설치되면 옥상 출입이 통제됨
으로써 추락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
라 자살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읍시보건소는 7일부터 11일까지 삼화
타운아파트에 추락 자살 예방을 위한 옥
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시 보건소는 이미 2022년에 5개 아파
트, 총 38개 옥상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바 있으며, 올해는 삼화타운아
파트에 9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설치 이후에도 시 보건소는 장치 관
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아파트와
협력해 자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
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
파트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순희경 보건소장은 "옥상문 자동개
폐장치 설치로 아파트 내 자살 위험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아파트와
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
과 자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형질변경 토지 지목현실화 위한 적극행정 추진

정읍시는 오는 2026년까지 시민 재산
권 보호를 위한 지목현실화 사업을 본
격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1월 19일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이 건축된 산지(임야)에 대해 지목
을 대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지(임야)는 산지법 시행 이후 형
질변경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면 산림법에서 규정하는 산지전용 절
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는 1962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별도의 산지전용 절차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추
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행정자료와
1966년부터 2023년까지 촬영된 항공사
진을 활용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목현실화가 가능한 토지를
확인한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상담
과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
해서만 이뤄지는 방식의 한계를 넘어
서,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혁신적 행정의 일환으로 평
가받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목현실화 대상 토
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재산
권을 보호하고, 불편을 사전에 해결하
는 적극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고창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고창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
안을 확보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협력
에 앞장선다

군은 지난 2일 김철태 고창부군수,
이철수 고창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고창군 및 고창경찰서 실무부서 팀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지
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
의회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확보를 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
력에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고창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자율
방범대 복제 관련 예산 확보 및 협업,
△범죄취약지역 CCTV 확충과 관련하

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수 고창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장은 "최근 다양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치안 환경 조
성을 위해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시
설 개선과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등 다
각적인 대응책을 마련 해 나갈 것"이
라고 밝혔다.

김철태 고창부군수는 "지역 치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현대사회에 관
계 기관단체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라며, "앞으로 주요 치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with hands pointing towards her. The text promotes reporting crimes to 112, highlighting benefits for children and youth protection, and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for reporting.